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매개체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as a Mediator between Social Capital and Sharing Economy

이 승 민 (Seungmin Lee)*

박 종 도 (Jong Do Park)**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
| 3. 연구방법 |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매개하여 전체적인 사회적 편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였다. 상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며,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의 형성 및 공유경제에 대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and sharing economy, which are the new paradigm in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society. In addition, it identified the social roles of a public library as a mediator that promotes the social benefit by conducting a survey questionnaire.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ocial capital and sharing economy are the co-related societal phenomenon, and public libraries positively effect on the construction of social capital and the participation in sharing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les of a public library as a mediator between social capital and sharing economy, it was identified that various programs provided by public libraries positively effect on mediating social capital and sharing economy.

키워드: 사회자본, 공유경제, 공공도서관, 휴먼 네트워크

Social Capital, Sharing Economy, Public Library, Human Network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ableman@cau.ac.kr / ISNI 0000 0004 6418 7521) (제1저자)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dp23@inu.ac.kr / ISNI 0000 0004 7358 748X)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9년 8월 1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8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8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121-141,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3.121]

1. 서론

정보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온 사회의 변화는 역설적으로 정보환경의 중심축이 이전의 정보기술 중심에서 사람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기존의 정보 네트워크가 가져온 정보 활용의 방식이 정보를 입수하는 정보 중심적인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휴먼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보 네트워크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 확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확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 형성이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보의 입수 및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의 형성을 포함한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두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하나로 공유경제를 들 수 있다. 공유경제는 전통적인 경제 시스템과는 달리 사람들 사이의 연계 및 상호 신뢰를 통해 잉여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환경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 사회적 편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현상의 공통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고 공유되며, 이는 다시 유무형의 자원이나 재화를 상호 이용하고 공유하는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이며, 이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위

한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의 정보 네트워크 활용과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요인들은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모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고려라는 동일한 근본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과 공유경제 사이의 공통점이나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규명된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커뮤니티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와 사회자본은 대상으로 하는 자원이 다르고, 경제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라는 극명하게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와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데는 많은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보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온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한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상호 연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공공도서관은 정보적 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경제를 지원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근본적 개념과 기반을 지니고 있는 공유경제와 사회자본을 연계시킬 수 있는 매개적인 기관으로서의 공공도

서관의 역할을 고찰하고,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향후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자본

사회자본의 개념은 Granovetter, Bourdieu, Coleman 등에 의해서 발전 및 정립되었으며, 현재 인적 자원, 물질 자원 등과 함께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가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은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진화해 왔으며(심홍진, 황유선 2010, 332), 따라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한 마디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여러 분야에서는 각 분야의 특성에 맞게 사회자본의 개념을 적용해 왔으며, 이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ourdieu(1986)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의 구축을 통해서 개인 혹은 집단이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무형의 사회적인 자본이며(최윤정 2008), 한 개인이 특정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으로 설명할 수 있다(윤미선, 이종혁 2012, 17-19).

이와 유사하게, Coleman(1988)은 사회자본

을 사람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 속에 내재된 유무형의 자원의 집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속에 내재된 무형의 자본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인 자본인 것이다. Paxton(2002) 또한 사회자본을 사람들 사이의 상호 교류를 통해 형성되며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사회적 행동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사회적인 자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논의와는 달리, Putnam은 사회자본을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거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Putnam(1995)은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 신뢰, 호혜성 등을 통해 사회자본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으며, 한 사회의 사회자본은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Chung, Shim and Choi(2006)는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으로 사회적 교환, 보상, 협력, 경쟁 등 사회적 참여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반면 Park(2002)은 사회적 규범, 사람들 사이의 상호 신뢰, 협력, 정보 공유, 호혜적 활동 등을 사회자본 형성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Putnam(2000)은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을 사회적 호혜, 사회적 참여, 사회적 관계 형성 등으로 들고 있으며, Ellison, Steinfield and Lampe(2007)은 신뢰, 사회적 호혜에 기반한 자기만족, 사회적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구조를 사회자본 형성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이 지니고 있는 함의나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사회자본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과는 달리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는 무형의 자원이며, 사회의 잠재적인 자본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이승민 2018). 또한 사회자본은 개인적인 수준이 아닌 사회적 수준에서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협력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자본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Bourdieu 1986; Putnam 2000). 이외에도 사회자본은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Coleman 1988; Field 2003).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자본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 속에 무형의 자본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Burt 1997; Lin 1999; Ju 2016; Alder and Kwon 2000).

2.2 공유경제

현재 공유경제는 전통적인 경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과 상반되거나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며, 기존의 경제 시스템과 공존하면서 사람들의 요구,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개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로 대두되었으며, 이후 2008년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한 경제 위기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유를 활성화하였으며(Cusumano 2015), 개인 사이의 거래 및 협력적 소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유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게 되었다(Hamari, Sjöklint and Ukkonen 2016).

공유경제의 개념은 1984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Harvard University의 Martin Wietzman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The Share Economy>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Wietzman 1984). 하지만 당시의 공유경제의 개념은 수익을 공유하는 체계로 이해되었으며, 현재 통용되는 공유경제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01년, Jeremy Rifkin은 <The Age of Access>에서 현재의 공유경제와 유사한 개념을 주창하였다. 즉, 소유가 아닌 접근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주장하면서, 재화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모든 재화에 접근함으로써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개념을 언급하였다(Rifkin 2001).

이러한 초창기의 공유경제의 개념은 2008년 Harvard University의 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현재의 공유경제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Lessig(2008)은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학술적인 측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사람들이 가격이나 재화에 기반을 둔 교환을 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목적으로 교환을 하는 것으로 공유경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유형의 재화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 경험, 기술 등과 같은 무형의 자원을 정보통신기술, 소셜 네트워크 등

을 통해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으로도 공유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초창기의 공유경제 시스템은 각 개인이 중고 시장이나 개인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자신이 소유한 재화를 판매 혹은 교환하는 방식이었으며, 이윤을 창출하기보다는 잉여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공유경제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ICT 기술의 발전, 스마트기기의 대중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웹 커뮤니티의 광범위한 확장 등으로 인해 하나의 대규모적인 경제의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Sung, Kim and Lee 2018, 2).

하지만 공유경제가 기존의 경제 시스템과 다른 점은 공유경제는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요인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Botsman and Rogers(2010)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기술 등과 같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경제모델로 공유경제를 설명하고 있으며, Böcker and Meelen(2017)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실제적인 요인들을 제시한 연구 또한 수행되어 왔다.

공유경제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및 ICT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는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및 연결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기반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의 범위가 보다 확장될 수 있

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공유경제의 활성화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는 공유경제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Bellotti et al, 2015).

사회적 신뢰 이외에도,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변화 역시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Gansky 2010, 164). 보다 구체적으로, Hamari, Sjöklint and Ukkonen (2015)은 협력적 소비에 대한 태도 및 사용 의도 측면에서 환경의 지속가능성, 즐거움, 평판, 경제적 혜택의 네 가지 요인을 개념화하고 이를 공유경제의 동기요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는 다소 다르게, Lamberton and Rose (2012)는 공유에 있어서의 경제적 이익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용의 절감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Ikkala and Lampinen(2015) 또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주된 요인으로 언급하였으며, 이외에도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인 관계라는 측면은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 네트워크를 공유경제 활성화의 요인으로 언급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정보 네트워크는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도구이며(Wang, Hsu and Fang 2005),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보 네트워크에 대해 갖는 태도가 공유경제를 이용한 소비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역시 공유경제의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Davis 1993).

이와 같이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요인들은 다

양한 측면에서 제시되어 왔지만, 이들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공유경제라는 사회적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 시스템과는 달리 유형의 자원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 경험 등과 같은 무형의 자원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의 연결이 필수적이며, 이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신뢰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3 사회자본과 공유경제

사회자본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의 자본으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사회적 신뢰, 사회적 참여를 통해 상호호혜, 사회적 편익을 이루어 가는 사회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각 개인이 소유한 유무형의 재화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환경의 유지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 경제 시스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유경제와 사회자본은 많은 측면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보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를 진화시켜 가는데 있어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모두 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기관에의 참여를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경제와 사회자본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각각을 형성하고 활성화하고 있는 요인들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사회적 측면은 사회자본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자본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Ju 2016). 이와 함께, 사회자본은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가치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를 이루어가는 이론적인 기반 혹은 근본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경제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은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며 공유경제는 경제적 자원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상관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핵심 요인들을 공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경제의 이용에 어떤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공공도서관은 정보의 허브로서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과 자원을 제공해 주는 정보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이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진화하면서, 공공도서관은 정보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으며,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공유경제의 활성화 및 사회자본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이들 사이의 연계를 통해 사회의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정보적 기능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이들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매개하는데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변수 설정 및 설문항목 구성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사회적 기능을 상호 연계하는 매개체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의 형성 및 공유경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를 분석을 위한 변수로 설정하였다. 변수의 설정을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요인들에 대한 이전의 연구(Coleman 1988; Putnam 1995; Park 2002; Ellison, Steinfield and Lampe 2007; Alder and Kwon 2000)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요인들을 사회자본 형성의 핵심요인들로 설

정하였으며, 공유경제 측면에서는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개인적, 사회적 동기요인(Botsman and Rogers 2010; Böcker and Meelen 2017; Bellotti et al. 2015; Gansky 2010; Amari, Sjöklint and Ukkonen 2015; Lamberon and Rose 2012) 들을 공유경제의 핵심요인들로 추출하였다.

설정된 변수를 기반으로 구조화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총 4개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첫째, 연령, 성별, 가계수입, 학력수준 등 인구통계적 항목을 통해 설문 참여자에 대한 일반사항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인들이 각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을 구성하였다. 셋째,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참여하거나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인들을 확인하는 항목을 구성하였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자본과 공유경제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요인 및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공공도서관 자료의 대출, 공공도서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공공도서관의 시설이나 설비 이용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의 이용 방식 역시 공공도서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방식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신뢰도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1주간에 걸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배포한 총 299부의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작성된 2부를 제외한 297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데이터의 분석에는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을 포함한 총 20개의 설문문항에 대한 내적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전체 설문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826으로, 통계적 분석을 위한 내적 신뢰도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4. 분석 결과

4.1 인구통계적 특성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총 297명 중 성별은 남자 125명(42.1%), 여자 172명(57.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수준은 학사학위 소지자가 127명(4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4.2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공도서관 사이의 상관관계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사회적 참여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특히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

<표 1>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 신뢰도 분석

구분	변수	문항 수	Cronbach's α
사회자본	오프라인 커뮤니티 참여	4	.718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사회적 신뢰		
	사회적호혜		
공유경제	공유경제 이용경험	6	.641
	경제적 이익		
	공유경제 신뢰		
	개인적 만족감		
	기관-개인선호도		
공공도서관 이용	사회적 편익	6	.732
	도서관 방문 빈도		
	온라인-오프라인 선호도		
	자료대출 빈도		
	프로그램 참여 빈도		
	도서관 설비 이용		
도서관 공유서비스 이용			

〈표 2〉 설문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빈도(명)	비율(%)
남	125	42.1
여	172	57.9
Total	297	100.0
연령	빈도(명)	비율(%)
20-29	93	31.3
30-39	96	32.3
40-49	88	29.6
50-59	13	4.4
60대 이상	7	2.4
Total	297	100.0
가계 수입	빈도(명)	비율(%)
2천만원 미만	33	11.1
2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61	20.6
4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84	28.4
6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58	19.6
8천만원 이상	60	20.3
Total	296	100.0
학력수준	빈도(명)	비율(%)
고졸	43	14.5
전문대학졸	23	7.7
대학재학	83	27.9
학사	127	42.8
석사	16	5.4
박사	5	1.7
Total	297	100.0

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정보 및 이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은 공공도서관이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해 온 사회적, 정보적 역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보환경의 진화 및 휴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증대함과 동시에 현재 공공도서관은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패러다임 변화는 사람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적 기관으로서의 범주를 뛰어넘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이승민 2018). 특히 현재의 공공도서관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확장 및 사회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공도서관 이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요인들은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커뮤니티 참여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신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및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개인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이 사람들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신뢰도와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사회자본의 형성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능인 정보의 제공 자체로는 사회자본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 가운데 사회적 신뢰

<표 3>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공도서관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오프라인 커뮤니티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사회적 신뢰	사회적 호혜
도서관 방문 빈도	Pearson 상관	.219**	.342**	.243**	.278**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N	297	297	297	297
온라인-오프라인 선호도	Pearson 상관	.128*	.143*	.023	.006
	유의확률 (양측)	.027	.014	.692	.920
	N	297	297	297	297
자료대출 빈도	Pearson 상관	.312**	.333**	.278**	.342**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N	297	297	297	297
프로그램 참여 빈도	Pearson 상관	.495**	.420**	.273**	.39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N	297	297	297	297
도서관 설비 이용	Pearson 상관	.329**	.301**	.268**	.292**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N	297	297	297	297
도서관 공유서비스	Pearson 상관	.140*	.220**	.208**	.352**
	유의확률 (양측)	.016	.000	.000	.000
	N	297	297	297	297

* $p < 0.05$, ** $p < 0.01$

및 사회적 호혜와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인 대부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공공도서관의 이용 방식 가운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운데 어느 방식을 선호하는지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사회자본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방식보다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및 프로그램에의 참여 자체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보다 큰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공유경제 동기요인과 공공도서관 이용 사이의 상관관계

공유경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개인과 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개체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하고 교환하기 위해서는 개체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개체에 대한 평판이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의 공유경제는 정보 네트워크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어 있으나, 공유하는 유무형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한 사항이다.

공공도서관에서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각 개인이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신뢰성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

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을 제공해 주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실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공유경제 동기요인과 공공도서관 이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 가운데, 공공도서관의 방문 빈도,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이용,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공유서비스에의 참여는 공유경제의 동기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대출은 개인이 공유경제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각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관점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물리적인 소장자료의 대출 중심에서 정보의 공유 및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이용 방식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r=.342, p<0.01$)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설비의 이용($r=.270, p<0.01$)은 공유경제의 대상 중 물질적 자원보다 무형의 정보 공유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정보와 경험의 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설비를 이용하는 것

〈표 4〉 공유경제 동기요인과 공공도서관 이용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공유경제 이용 경험	경제적 이익	공유경제 신뢰	개인적 만족감	기관-개인 선호도	사회적 편익
도서관 방문 빈도	Pearson 상관	.299**	.177**	.207**	.229**	.031	.092
	유의확률 (양측)	.000	.002	.000	.000	.592	.115
	N	297	297	297	297	296	297
오프라인-온라인 선호도	Pearson 상관	.096	.054	.006	-.005	.137*	-.045
	유의확률 (양측)	.097	.351	.915	.930	.019	.436
	N	297	297	297	297	296	297
자료대출 빈도	Pearson 상관	.337**	.072	.190**	.206**	.049	.015
	유의확률 (양측)	.000	.214	.001	.000	.404	.797
	N	297	297	297	297	296	297
프로그램 참여 빈도	Pearson 상관	.330**	.161**	.318**	.361**	.094	.006
	유의확률 (양측)	.000	.006	.000	.000	.106	.914
	N	297	297	297	297	296	297
도서관 설비 이용	Pearson 상관	.333**	.165**	.295**	.294**	.029	.094
	유의확률 (양측)	.000	.004	.000	.000	.616	.106
	N	297	297	297	297	296	297
도서관 공유서비스	Pearson 상관	.261**	.155**	.302**	.292**	.066	.269**
	유의확률 (양측)	.000	.008	.000	.000	.256	.000
	N	297	297	297	297	296	297

* $p < 0.05$, ** $p < 0.01$

역시 개인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의 활용 및 이의 공유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대출 역시 무형의 정보공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r = .180, p < 0.01$),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물적 자원의 공유보다는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무형의 정보와 지식, 경험의 공유와 보다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인들은 공유경제에 대한 태도 및 참여도와 상호간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인식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공유서비스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r = .269, p < 0.01$), 공공도서관이 각 개인의 정보요구 충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동기요인들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역할 또한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커뮤니티센터로 진화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유경제의 대상이 되는 자원 중 무형의 지식과 정보에 대

한 공유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정보적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공유경제와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전통적인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매개체로서의 공공도서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많은 요인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은 상호 연계되어서 작용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담당하는 정보적, 사회적 역할은 사회자본의 형성 및 공유경제의 참여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경제를 연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과 공유경제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들 상관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통해 단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사회자본의 형성 및 공유경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공공도서관 자료 대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설비 이용, 공공도서관을 통한 공유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의 형성을 Model I으로 설정하고 공유경제 관련 변수를 Model II에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4.4.1 공공도서관 자료 대출과 사회자본 및 공유경제 사이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공공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자원의 이용이 사회 구조 안에서의 유무형의 자원을 상호 이용하고 이를 신뢰한다는 측면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의 대출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 및 사회적 편익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공유경제의 신뢰, 개인적 만족감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 자료의 대출이 개인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 자료의 대출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경제의 참여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인하였다.

〈표 5〉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Model I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은 모두 공공도서관의 자료 대출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에 투입된 변수에 공유경제

〈표 5〉 공공도서관 자료 대출과 사회자본 및 공유경제 사이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Model I			Model II		
	B	beta	t	B	beta	t
상수	.997	-	3.706	1.390	-	3.229
커뮤니티 참여	.176	.185	3.044**	.180	.189	2.897**
사회적 신뢰	.216	.166	2.969**	.231	.178	3.069**
사회적 호혜	.255	.218	3.654**	.242	.207	3.301**
경제적 이익				-.057	-.042	-.721
공유경제 신뢰				.003	.002	.035
공유경제 만족감				.072	.050	.715
정보공유 서비스				.004	.004	.063
사회적 편익				-.122	-.078	-1.378
F	21.765**			8.467**		
R ²	.182			.190		
R ² change	.174			.168		

* $p < 0.05$, ** $p < 0.01$

관련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Model II에서는 Model I에서의 유의미한 변수들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유경제 관련 변수들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도와 개인적인 만족감은 공공도서관의 자료 대출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매개적인 역할로서의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대출 이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의 대출이 개인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보다 중점을 두는 정보활동이며,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공공도서관의 활동이 소장자료의 구축 및 이에 기반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정보적 기관으로부터 사회적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의 형성이라는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사회적 기관으로 인식의 패러다임의 진화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4.2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와 사회자본 및 공유경제 사이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소장자료의 대출 이용과는 달리,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정보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공유경제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편익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유경제 동기요인과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유경제의 특성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경제에 대한 참여가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매개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6〉 참조).

분석 결과, Model I에서의 커뮤니티 참여($t=4.721, p<0.01$), 사회적 신뢰($t=2.386, p<0.05$), 사회적 호혜($t=4.102, p<0.01$) 등은 모두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참여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에 투입된 변수에 공유경제 관련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Model II에서는 Model I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던 변수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경제 관련 변수 가운데에서는 공유경제를 통해 얻는 만족감($t=2.471, p<0.05$), 공유경제를

통한 정보의 공유($t=2.375, p<0.0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도 및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의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사회적 신뢰, 사회적 호혜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 내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에 참여를 이끌어 내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유경제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 역시 개인의 정보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때문에,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 자체가 사회적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표 6〉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와 사회자본 및 공유경제 사이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Model I			Model II		
	B	beta	t	B	beta	t
상수	.225	-	.866	.182	-	.454
커뮤니티 참여	.264	.276	4.721**	.191	.199	3.285**
사회적 신뢰	.168	.129	2.386*	.138	.106	1.968*
사회적 호혜	.276	.235	4.102**	.206	.175	3.010**
경제적 이익				.010	.007	.135
공유경제 신뢰				.082	.057	.900
공유경제 만족감				.233	.160	2.471*
정보공유 서비스				.129	.132	2.375*
사회적 편익				-.230	-.147	-2.728*
F	31.311**			15.592**		
R ²	.243			.302		
R ² change	.235			.283		

* $p<0.05$, ** $p<0.01$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호혜성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4.3 공공도서관 설비 이용과 사회자본 및 공유경제 사이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공공도서관의 시설이나 설비 이용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공유 개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설비 이용은 대부분의 사회자본 형성의 요인들 및 공유경제의 동기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공유경제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에 대한 인식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의 이용 자체가 정보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설비 이용이 사회자

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설비 이용은 Model I의 사회자본 변수 가운데 사회적 신뢰($t=2.997, p<0.05$) 및 사회적 호혜($t=2.848, p<0.05$)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I에서의 공유경제 동기요인 변수들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설비 및 시설의 이용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에서 제시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설비 이용이 공유경제의 참여 동기 요인과 상호 관련성을 보였으나, 이는 공공도서관 설비 이용과 공유경제 사이에서의 상호 영향관계이며,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연계하는데 있어서는 공공도서관 설비 이용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7> 공공도서관 설비 이용과 사회자본 및 공유경제 사이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Model I			Model II		
	B	beta	t	B	beta	t
상수	1.154	-	4.059	.560	-	1.252
커뮤니티 참여	.169	.170	2.752	.095	.096	1.460
사회적 신뢰	.230	.171	2.997*	.180	.134	2.305**
사회적 호혜	.210	.173	2.848*	.144	.119	1.883
경제적 이익				.036	.026	.437
공유경제 신뢰				.138	.093	1.364
공유경제 만족감				.142	.095	1.350
정보공유 서비스				.105	.104	1.724
사회적 편익				-.050	-.031	-.537
F	16.964**			8.119**		
R ²	.148			.184		
R ² change	.139			.161		

* $p<0.05$, ** $p<0.01$

이를 종합하면, 공유경제는 사회적 편익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는 사회자본의 형성 및 공유경제에의 참여를 위한 동기 요인 각각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결 론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모두 사람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 관계 속에 내재하는 사회적 신뢰, 사회적 편익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형성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또한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모두 사회적 편익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사회가 고려해야 하는 중추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과 공유경제 사이의 연계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보적,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과 사회자본 형성 측면에서는,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 가운데 사회적 신뢰 및 사회적 호혜와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요인 대부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커뮤니티 참여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신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및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개인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공공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능인 정보의 제공 자체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측면에서 역시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동기요인들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역할 또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유경제의 대상이 되는 자원 중 무형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공유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연계하는데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대출 이용은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공공도서관의 활동이 소장자료의 구축 및 이에 기반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정보적 기관으로부터 사회적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의 형성이라는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사회적 기관으로 인식의 패러다임의 진화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의 참

여는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사회적 신뢰, 사회적 호혜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 내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유경제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 역시 개인의 정보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참여 자체가 사회적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이용은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는 사회자본의 형성 및 공유경제에의 참여를 위한 동기

요인 각각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편익을 도모하고 진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정보적,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활동이 소장자료의 구축 및 이에 기반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정보적 기관으로부터 사회적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의 형성이라는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사회적 기관으로 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호혜성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심홍진, 황유선. 2010.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와 사회자본: 트위터 초기사용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5): 327-347.
- [2] 윤미선, 이종혁. 2012. 소셜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한 매개모델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2): 5-44.
- [3] 이승민. 2018.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정보공유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4): 27-49.
- [4] 최윤정. 2008. 대중 매체 이용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매개모델 검증. 『한국언론학보』, 52(3): 374-395.
- [5] Adler, P. S. and Kwon, S. W. 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7-40.
- [6] Bellotti, Victoria et al. 2015. "A muddle of models of motivation for using peer-to-peer economy systems." In *Proceedings of the 33rd Annual ACM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Seoul, Korea, 18-23 April 2015: pp.1085-1094.

- [7] Böcker, Lars and Meelen, Toon. 2017. "Sharing for people, planet or profit?: Analysing motivations for intended sharing economy participation."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Societal Transitions*, 23: 28-39.
- [8] Botsman, R. and Rogers, R. 2010.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HarperBusiness: New York, NY, USA.
- [9]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 [10] Burt, R. S. 2000.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In E. L. Lesser (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Boston: Butterworth Heinemann, 255-285.
- [11] Chung, G. W., Shim, J. M. and Choi, K. E. 2006. *Social capital of the rural area and development of local society*. Research Report R527.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Korea.
- [12]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13] Cusumano, Michael A. 2015. "How traditional firms must compete in the sharing economy." *Communications of the ACM*, 58(1): 32-34.
- [14] Davis, Fred D. 1993.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characteristics, user perceptions and behavioral impact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Machine Studies*, 38(3): 475-487.
- [15] Ellison, N., Steinfield, C. and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 1143-1168.
- [16] Field, J. 2003. "Civic engagement and lifelong learning: Survey findings on social capital and attitudes towards learning."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35, 142-156.
- [17] Gansky, L. 2010. *The Mesh: Why the future of business is sharing*. New York, NY: Portfolio Penguin.
- [18] Hamari, Juho, Mimmi Sjöklint and Antti Ukkonen. 2015. "The sharing economy: Why people participate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7(9): 2014-2059.
- [19] Ikkala, Tapio and Lampinen, Airi. 2015. "Monetizing network hospitality: Hospitality and sociability in the context of Airbnb." In *Proceedings of the 18th ACM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 Social Computing*, Vancouver, BC, Canada, 14-18 March 2015, 1033-1044.

- [20] Ju, D. 2016.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ing economy and social capital: Focusing on the consumption intentions of the sharing accommod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31, 23-40.
- [21] Lamberton, Cait Poynor and Rose, Randall L. 2012. "When is ours better than min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ltering participation in commercial sharing systems." *Journal of Marketing*, 76(4): 109-125.
- [22] Lessig, Lawrence. 2008.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New York, NY: Penguin Press.
- [23] Lin, N. 1999. "Social Networks and Status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467-487.
- [24] Park, H. B. 2002. "Issues and research trends of social capital theory."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8(1): 5-45.
- [25] Paxton, P. 2002.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1-24.
- [26]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 [27]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28] Rifkin, Jeremy. 2001. *The age of access: The new culture of hypercapitalism*. New York, NY: TarcherPerigee.
- [29] Sung, E., Kim, H. and Lee, D. 2018. "Why do people consume and provide sharing economy accommodation?: A sustainability perspective." *Sustainability*, 2018, 10, 2072.
- [30] Wang, Chih-Chien, YaHui Hsu and Wenchang Fang. 2005. "Acceptance of technology with network externalities: An empirical study of internet instant messaging servic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ory and Application*, 6(4). [online] [cited 2019. 6. 7.] <<https://aisel.aisnet.org/jitta/vol6/iss4/4>>
- [31] Wietzman, Martin. 1984. *The share economy: Conquering stagfl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Him, Hong Jin and Hwang, Yoo Sun.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blogging service

- and social capital among the early adopters of Twitte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5): 327-347.
- [2] Yoon, Mi-Sun and Lee, Jong Hyuk. 2012. “Antecedents of social media use, actual use, and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a mediation model.”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3(2): 5-44.
- [3] Lee, Seungmin. 2018. “Effect of public library-mediated information sharing on the construc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4): 27-49.
- [4] Choi, Yun Jung. 2008. “An analysis of mass media uses influence on social capital based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medi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3): 374-395.

